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4월 24일 부활 2주일 · 다해 · 백색

제57-16호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요한 20:19-31)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이 오듯 길기만 하던 사순절이 지나고 어느덧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전례독서는 부활하신 뒤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활 2주일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도 예수님의 발현이라는 사건을 접한 사도 토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이 있었지만 유독 토마 사도는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오늘 복음에서 보여준 토마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이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마의 불신앙을 바라보기에 앞서 토마의 입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토마 역시 열 두 사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한 자리에 없었을 때 예수님의 발현이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는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의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토마 사도는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싶었습

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처에 손을 직접 넣어보야 믿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때나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 낼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환희는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현양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토마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그를 공동체의 기쁨에 참여토록 하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인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된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불리움 받은 이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께 거저 받은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이들로 살아갑시다.

(구굴하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굴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중희 요셉
사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이중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중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부활절기 전례 안내

부활절기 전례곡은 B곡 시편곡조는 앵글리칸 찬트(성가 49장)입니다. 부활절기 주일 전례에서는 니케아신경을 외웁니다(기도서 249쪽, 성가 76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성가책을 지참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기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4월 26일부터 화/수/목/금 오전 6시 30분에 성전에서 평일 아침 성찬례를 드립니다. 주간 모임 재개와 일정 정돈에 따라 평일 성찬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다시 공지합니다.

3. 부활절기 심방 신청

5월부터 조심스럽게 가정 심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역 장들께서는 필요한 심방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고, 가정 심방이 어려운 분은 사목단에 기도 면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교회위원회 사목과 선교 워크숍

사목단, 교회위원회, 단체장 연석의 사목과 선교 워크숍이 다음 주일(5월 1일) 오후 1시에 성전에서 열립니다. 다음 내용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5월 교회위원회 보고와 6월 사목 계획
- 영등포 성당 사목과 선교 기조 발표
- 건강한 교회 지표 안내
- 분야별 집중 토론과 실천 계획 작성

2. 연중 봉헌 서약 접수

봉헌서약서를 연중 접수합니다. 봉헌의 신앙에 관한 안내문을 잘 읽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정가 2만원입니다.

4. 제단 꽃 봉헌 요청

사무실 앞에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성가대

성가대는 부활대축일을 맞아 수고를 격려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신환중 교우께서 점심 식사에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고사리 주문 1봉 2만6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경심(24일) 윤선구(26일)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곽순연 김민숙 김종희 김태영 변진선 송미경 신명식 유해상 윤길자 윤선구 윤지훈 이종한 장분순 정준희 차영호 최종주

■ 주정헌금

김경숙 김경아 김요한 문해화 박소현 박주영 서정민 송미경 송미경 신희숙 윤영옥 윤옥랑 이경희 이광자 이성빈 이은미 이정숙 이종한 전병도 주창남 주창순 한부순

■ 부활감사헌금

김종희 윤영옥 이정숙 이종한 고흥 서남철 서세룡 신환중 이경희 차기성 박영수 김문자 김삼홍 김영해 김재엽 민병화 박해웅 변진선 성하준 송미경 오현희 유인환 유해상 유해경 윤선구 윤용환 이복련 이성빈 이성식 이용해 이은미 이충웅 조진성 주낙현신부 차기영 최종주 최효운 추형두 한재엽 강서린 고창덕 고창현 구균하신부 김민숙 김영대 김용학 박계자 박성준 신병순 신명식 유권열 유윤근 유호애 유희주 윤범기 윤옥랑 윤지훈 이보연 이선종 전병도 정상임 조혜순 주애다 주창순 최미영 추경민 하원재 한기원 한지원 강수옥 고아랑 박은영 김경숙 김난희 박남미 송미경 윤길자 이광자 이완 이정주 장분순 정정훈 차영호 김요한 서한규 주경심 이제이 이태이 차준혁 이규리 정지원 무명2

■ 감사헌금

곽하민(생일) 박계자(사순) 박성준(생활) 박순아(생활) 변금숙(성주간) 송미경(사순) 신환중(사순) 신희숙(생활) 윤선구(건강) 윤영옥(사순/세족례) 전병도(사순) 정정훈(사순) 주창순(생활) 최종주(생일) 한재엽(사순) 무명12명(사순)

■ 기타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박영수

■ 극기헌금

김난희 서세룡 윤영옥 윤용환 · 한부순 이충웅 주애다 무명1명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 · 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부활의 은총 - 신앙과 전례와 교회의 회복

예수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넘는 시점에 부활의 기쁨과 일상 회복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전혀 달랐습니다. 세계와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가르며 쇄신의 길을 걸으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성당도 새로운 회복의 시점에서 스스로 도전하고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기쁜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복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회복을 다짐합니다.

첫째, 신앙의 회복입니다.

부활은 옛 시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펼치는 일입니다. 일상 회복을 옛 시절과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회와 인간관계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신앙 회복의 출발입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과 성향이 기준이 되는 일을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내력에만 기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생명을 너나없이 함께, 언제나 새롭게 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례의 회복입니다.

전례는 오랜 교회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축하 잔치로 시작된 전례가 교회의 기도와 신학을 만들었고, 마침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전례는 오랜 역사 안에서 성인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마련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특히, 성공회는 아름다운 전례 전통으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전례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젊은 세대 안에서 새롭게 싹트고 있습니다. 관습으로 전락한 전례에 관한 오해를 넘어서서, 기쁜 부활의 축하와 잔치로서 전례를 회복할 때입니다. 전례 공간의 변화와 신자의 집중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회 선교의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예배하는 교회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친교의 기쁨이 세상을 향한 환대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신자를 맞이하려는 우리 자신의 훈련과 준비는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성당이 환대하는 곳인가? 언제나 찾아 기도하고 싶은 곳인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많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곳인가? 이에 대한 응답 안에 신앙 쇄신과 교회 발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 이후의 신앙인입니다. 쇄신과 회복의 다짐과 실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19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하여
- ◆ 대선 이후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에 김복근 민병하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29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1 다함께
영광송 (B곡) ✧ 246 /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놓고 우리를 기
다리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를 이끄시어 모든 의심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
님의 상처를 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 (읽는다) 사도5:27-32 말은이
시편 시편 150편 다함께



- 1 알렐루야!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 하늘에서 그 위력을 찬미하여라.
2 엄청난 일 하셨다, 그를 찬미하여라.
○ 그지없이 높으시다, 찬미하여라.
3 나팔소리 우렁차게 그를 찬미하여라.
○ 거문고와 수금 타며 찬미하여라.
4 북치고 춤추며 그를 찬미하여라.
○ 현금 뜯고 피리 불며 찬미하여라.
5 자바라를 치며 그를 찬미하여라.
○ 징을 치며 찬미하여라.
6 숨 쉬는 모든 것들이야,
○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렐루-야!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 독서 (읽는다) 묵시1:4-8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 (선다) 요한 20:19-31 말은이
설교 (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 (선다) ✧ 249 / ♪ 76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선다) ✧ 292 다함께
봉헌성가 ♪ 216장 다함께
예물기도 ✧ 292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257 / ♪ 77 다함께
기념환호송(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 78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 (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
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
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향
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광고 (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선다) ✧ 292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224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4월 24일)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1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이성빈	서정민	이정숙
2독서	서정민	김예중	우영현	이복련
대 도	신명식	한재업	정상임	변금숙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	윤용환	이종한
다음 주일 5월 1일	전례독서 사도9:1-20 시편 30 묵시5:11-14 요한 21:1-19 성 가 입당 264장 봉헌 514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553장			
교 회 청 소	4월 30일 엑셀타테회 2조 고창덕 윤범기, 조진성, 추경민		5월 7일 유빌라테회 1조 김민경 천상옥 윤지훈	